

2017 현안연구
www.idi.re.kr

인천 시민 다문화수용성 기초 조사

배은주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허효선 ||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

배은주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 결과

- 인천은 관내로 이주하는 외국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 관내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일반 시민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파악하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함
- 외국인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식은 많이 사라졌으나, 다문화수용성은 중간 정도 수준임
 - 다양성 차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하여 문화개방성의 정도가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이고, 국민정체성 측면에서의 수용성도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의식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보임.
 - 관계성 차원을 살펴보면, 이주민에 대한 동화 기대는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부분 남아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거부나 회피 정서는 꽤 낮고,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음. 종합적으로 자신과 간접적인 관계 차원에서는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보편성 차원을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선진국 지향성은 잔존하고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행동실천경험보다는 행동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대중매체나 일상 속에서 외국인 및 이주민을 종종 접하고 살지만, 다문화교육을 받았거나 함께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시민은 적은 편임
 - 인천 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주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과 동남아 출신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자주 접하며,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 외국인,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 등을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됨. 반면에, 봉사활동 하는 외국이주민,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이주민 등은 거의 접하지 못함.
 -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은 약 25%에 불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이주민의 한국 거주 차별과 어려움,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등이며,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 내외에 불과함. 이와 달리, 약 50% 이상의 시민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약 35%의 시민들은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학교 또는 직장 동료로, 혹은 이웃, 친구나 친척 등으로 있으며, 극소수는 이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도 있음. 인천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가끔 또는 자주 보는 상황임.
- 단일민족지향성보다 다문화지향성이 강하고, 이주민의 합법성을 중시여기지만, 세계시민의식은 다소 약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범죄, 재정부담 면에서의 위협인식이 남아 있음
 -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인천 시민들은 혈연적 관계나 거주지보다 ‘한국인이라는 자의식’, ‘한국 정치제도와 법 존중’, ‘한국 국적’, ‘한국어능력’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고용에 대해서는 자국민우선주의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범죄인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성 관련 질병보유자나 성소수자, 난민 등은 이웃으로 삼고 싶어하지 않으며,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인천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임.
 - 국내외 현안인 지구문제 해결이나 해외원조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만, 난민 문제의 경우 인도적 지원에는 동의

하지만 수용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음.

- 가족, 민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매우 강하고, 독자적 개인, 동북아시아 공동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상대적으로 다소 약하게 나타남.
- 종족배제주의와 관련하여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높지만, 단일민족 지향성은 강하지 않으며, 다문화지향성은 높은 편임. 합법적 이주민과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타성이 강하며, 이주민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일자리와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외국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약하지만, 범죄와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위협 인식이 다소 남아 있음.

2.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일반 시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과 인권교육을 관내 시민대학, 평생교육기관, 언론매체, 공무원연수 등을 통해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 다문화이해교육을 확대, 강화하여 생소한 문화, 종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함.
 - 다문화교육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임.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므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과 인권교육은 인천 관내의 시민대학, 평생교육기관, 언론매체,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일반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함
 - 인천 시민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의지는 강하게 나타난 만큼, 세계가 하나의 지구공동체라는 세계시민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

성해 준다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계시민교육도, 다문화교육과 마찬가지로, 인천 관내의 시민대학, 평생교육기관, 언론매체,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홍보, 공익광고 등을 실행함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다름이 어울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캠페인, 홍보 등을 실행함.

□ 외국이주민과 간접적·직접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규모·소규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다문화 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함.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및 취미활동 동호회를 구성하고 지원하여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 해소, 협력과 배려 증진, 세계시민의식 등을 함양함.

○ 직장 내 동호회 조성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교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어울림,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의식 등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 다문화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차례

I. 연구 개요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 내용과 관련 용어	2
II. 인천 시민 다문화수용성 기초 조사	3
1. 조사 개요	3
2. 조사 결과	6
III. 요약 및 정책 제언	27
1. 요약 및 시사점	27
2. 정책 제언	30
참고문헌	34

표차례

〈표 II-1〉 설문조사 대상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표집 결과	4
〈표 II-2〉 설문 문항 내용	5
〈표 II-3〉 응답자 기본 정보	6
〈표 II-4〉 다양성 차원 척도 I: 문화개방성	8
〈표 II-5〉 다양성 차원 척도 II: 국민정체성	8
〈표 II-6〉 다양성 차원 척도 III: 고정관념 및 차별	9
〈표 II-7〉 관계성 차원 척도 I: 일방적 동화기대	10
〈표 II-8〉 관계성 차원 척도 II: 거부·회피 정서	11
〈표 II-9〉 관계성 차원 척도 III: 상호교류 행동의지	11
〈표 II-10〉 보편성 차원 척도 I: 이중적 평가	12
〈표 II-11〉 보편성 차원 척도 II: 세계시민 행동의지	13
〈표 II-12〉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관련 내용 접촉 경험	14
〈표 II-13〉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	17
〈표 II-14〉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19
〈표 II-15〉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	22
〈표 II-16〉 세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23
〈표 II-17〉 다문화지향성 및 단일민족지향성	24
〈표 II-18〉 종족배제주의	25
〈표 II-19〉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한 의견	26

그림차례

〈그림 Ⅱ-1〉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여부	14
〈그림 Ⅱ-2〉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출신국	15
〈그림 Ⅱ-3〉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	15
〈그림 Ⅱ-4〉 다문화 관련 교육의 내용(다중응답)	16
〈그림 Ⅱ-5〉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활동 경험 여부	16
〈그림 Ⅱ-6〉 주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유무	17
〈그림 Ⅱ-7〉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관계	17
〈그림 Ⅱ-8〉 주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유무	18
〈그림 Ⅱ-9〉 길거리에서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빈도	18
〈그림 Ⅱ-10〉 자국민 우선 고용에 대한 의견	20
〈그림 Ⅱ-11〉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21
〈그림 Ⅱ-12〉 한국 내 적정한 외국이주민 수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 사회 전반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 인종, 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인천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차이나타운을 관광명소화하였고, 결혼이주민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어,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나 노동, 학업 등의 이유로 인천광역시로 이주하는 이주민은 2016년 기준 94,670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서울, 경기도에 이어 다섯 번째임.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그들의 자녀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 기준 12,440명으로, 2009년(6,662명)에 비하여 9.3%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¹⁾
- 이러한 추세 속에서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특성을 지닌 이주배경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인식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조사를 실시하여 이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천비전 2050」(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2011).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 현황.

2. 주요 연구 내용과 관련 용어

□ 주요 연구 내용

- 인천 거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 설문지는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에서 개발, 사용한 일반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설문지를 사용함.
- 인천시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관련 용어

-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 1970년대 초 캐나다에서 처음 ‘다문화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로, 국적, 체류자격, 인종, 문화, 성별, 연령, 계층적 귀속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보편적 권리를 가지며 그들의 삶의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함(전경옥, 2010).
 - 최근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유지, 차이에 대한 존중, 그리고 한 개인의 독창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권리까지를 포함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진화함(문승호·김영천·정정훈 공역, 2009: 242).
-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하여 집단별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들과 조화로운 공존관계를 갖기 위하여 협력 및 노력하는 태도를 말함(안상수 외, 2012: 48).
 - 본 연구가 활용한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연구’의 설문조사 도구는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for Adults)’인데, 여기서 의미하는 ‘수용성’의 의미는 안상수 외(2015: 17)가 지적하듯이, 국가주도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또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편견적 태도 완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용어임.

II 인천 시민 다문화수용성 기초 조사

1.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인천 지역 8개 자치구(강화, 옹진 제외)에 거주하는 성인 1,02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함.
 - 2016년 1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근거하여 전체 인구의 약 0.03% 정도에 해당하는 1,020명을 전체 표본 크기로 설정함.
- 자치구별로 동률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지역별 표본크기를 설정함.
 - 지역별 표집에서 성별, 연령별 균등배분 표집함으로써 성과 연령에 의한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 지역별 표집에서 성별(남/여), 연령별(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로 층화표집하여 설문을 실시함.
 - 지역별 표집에서 연수구와 서구는 신도시가 조성되어 이전의 구 시가지와 거주민의 성향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신도시 지역(송도, 청라)과 구 시가지 지역(송도 외, 청라 외)을 구분하여 표집함.

□ 조사 및 분석 방법

- 조사는 대학생 조사원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층화표집 인원수만큼 인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함.
-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적인 경향성만을 분석함. 변인별 비교 분석은 추후 연구를 통하여 지수비교분석으로 실시할 예정임.

<표 II-1> 설문조사 대상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표집 결과

구분	인구수	표본 크기	성별	연령대별					소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중구	119,434	40	남	4	4	4	4	4	20
			여	4	4	4	4	4	20
동구	71,915	30	남	3	3	3	3	3	15
			여	3	3	3	3	3	15
남구	424,869	150	남	15	15	15	15	15	75
			여	15	15	15	15	15	75
연수구 (송도)	112,816	40	남	4	4	4	4	4	20
			여	4	4	4	4	4	20
연수구 (송도 외)	223,440	80	남	8	8	8	8	8	40
			여	8	8	8	8	8	40
남동구	543,038	190	남	19	19	19	19	19	95
			여	19	19	19	19	19	95
부평구	560,649	190	남	19	19	19	19	19	95
			여	19	19	19	19	19	95
계양구	333,344	120	남	12	12	12	12	12	60
			여	12	12	12	12	12	60
서구 (청라)	86,011	30	남	3	3	3	3	3	15
			여	3	3	3	3	3	15
서구 (청라 외)	436,349	150	남	15	15	15	15	15	75
			여	15	15	15	15	15	75
계	2,911,865	1,020	남	102	102	102	102	102	510
			여	102	102	102	102	102	510

2) 설문조사 내용

- 설문지는 안상수 외(2015)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의 설문지를 활용하고, 일부 문항의 경우에 수정, 보완하여 활용함.

<표 II-2> 설문 문항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응답자 배경변인	성별, 나이, 거주지역, 외국여행 및 거주 경험 여부	각 1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월평균 가구 총소득	
다문화수용성 관련 문항	다양성 차원의 수용성 문항	15
	관계성 차원의 수용성 문항	11
	보편성 차원의 수용성 문항	9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노출 경험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 속에서의 외국인 관련 내용 접촉 경험	11
	대중매체 통한 외국인 접촉 여부 및 출신 국가	2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 경험 여부 및 다문화 교육의 내용	2
	다문화 관련 활동 경험 여부	4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	4
국민정체성	한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11
자국민 우선 고용	자국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	1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9
적정한 외국인 수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적정 수	1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견	4
세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세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6
외국인 및 이주민 접촉 경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경험 및 갈등 경험	2
	길거리에서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빈도	1
종족배제주의	다문화지향성 및 단일민족지향성 문항	6
	종족배제주의 관련 문항	5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한 의견	4

2. 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 정보 분석

- 응답자 1,020명 중 남녀는 각 510명으로 1:1 비율이며,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각 연령대를 20%로 할당함.
- 거주지별로는 남동·부평구는 18.6%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남구와 서구(청라 외)가 14.7%로 많음. 동구와 청라 지역이 3%로 가장 적음.
- 해외여행 및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0%임.
-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 57.8%로 가장 많고, 미혼이 34.4%임.
- 교육수준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41.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이 25.1%, 4년제 미만 대학 졸업이 20.5% 순임.
-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34%로 가장 많고, 대학생 등 직장이 없는 응답자도 28.9%임.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 19.4%, '300~400만원 미만'이 19.3%로 많고, 700만원 이상이 11.6%, 100만원 미만이 6.1%임.

<표 II-3> 응답자 기본 정보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510	50.0
	여자	510	50.0
	계	1,020	100
연령	20대	204	20.0
	30대	204	20.0
	40대	204	20.0
	50대	204	20.0
	60대 이상	204	20.0
	계	1,020	100
거주지	중구	40	3.9
	동구	30	3.0
	남구	150	14.7
	연수구(송도)	40	3.9
	연수구(송도 외)	80	7.8
	남동구	190	18.6
	부평구	190	18.6
	계양구	120	11.8
	서구(청라)	30	3.0
	서구(청라 외)	150	14.7
	계	1,020	100

	구분	빈도	퍼센트
해외여행 및 거주 경험	없다	408	40.0
	있다	612	60.0
	계	1,020	100
혼인상태	미혼	351	34.4
	기혼	590	57.8
	기타	79	7.8
	계	1,020	100
교육수준	안 받았음	2	0.2
	초등학교	22	2.1
	중학교	53	5.2
	고등학교	425	41.7
	대학(4년제 미만)	209	20.5
	대학교(4년제 이상)	256	25.1
	대학원 이상	53	5.2
	계	1,020	100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47	34.0
	임시근로자	131	12.8
	일용근로자	25	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9	5.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0	9.8
	무급가족종사자	63	6.2
	해당사항 없음	295	28.9
	계	1,020	100
월평균 총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2	6.1
	100~200만원 미만	135	13.4
	200~300만원 미만	196	19.4
	300~400만원 미만	195	19.3
	400~500만원 미만	153	15.1
	500~600만원 미만	99	9.8
	600~700만원 미만	54	5.3
	700만원 이상	117	11.6
	계	1,011	100

2) 다문화수용성 진단 결과

□ 다양성 차원

- 문화개방성과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인천 시민의 과반 이상은 다른 문화나 종교, 인종에 대해 대체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소한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 정도가 꽤 낮은 편임.

- 피부색이나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 많이 사는 것은 괜찮지만, ‘생소한 문화

를 가진 외국이주민이 바로 이웃에 사는 것은 싫다'는 응답자가 약 66%인 것으로 보아,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진 이주민에게는 개방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II-4> 다양성 차원 척도 I : 문화개방성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68 (6.7)	224 (21.9)	217 (21.3)	294 (28.8)	159 (15.6)	58 (5.7)	3.42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45 (4.4)	184 (18.0)	235 (23.0)	320 (31.4)	170 (16.7)	66 (6.5)	3.57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37 (3.6)	126 (12.4)	209 (20.5)	254 (24.9)	291 (28.5)	103 (10.1)	3.93
다른 동네는 몰라도 바로 이웃에 생소한 문화를 가진 외국이주민이 사는 것은 싫다	137 (13.4)	313 (30.7)	223 (21.8)	225 (22.1)	103 (10.1)	19 (1.9)	2.90

○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외국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수용하는 데 피부색, 한국 출생, 한국 전통음식 등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국적을 취득한 외국이주민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수용적이지 않음.

- 외국이주민의 한국인으로의 수용 조건으로 한국 출생(평균 2.95), 전통음식(평균 2.94) 등은 중요도가 낮으며, 이보다는 피부색(평균 3.04)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짐을 알 수 있음. 외국이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적인 행위는 허용할 수 있지만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는 다수가 수용적이지 않음.

<표 II-5> 다양성 차원 척도 II : 국민정체성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31 (12.9)	303 (29.7)	179 (17.6)	240 (23.5)	136 (13.3)	31 (3.0)	3.04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31 (12.8)	333 (32.7)	183 (17.9)	228 (22.4)	115 (11.3)	30 (2.9)	2.95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주민에게 투표권은 인정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82 (8.0)	171 (16.8)	143 (14.0)	264 (25.9)	239 (23.4)	121 (11.9)	3.75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157 (15.4)	310 (30.4)	185 (18.1)	212 (20.8)	122 (12.0)	34 (3.3)	2.94

- 고정관념 및 차별과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고정관념 및 차별에 대한 의식이 적은 시민들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편견이나 차별을 별로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6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도 모든 문항이 3점 이하로 나타나 외국인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하지만 그 중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난 문항은 ‘외국 이주민들의 종교행사’(평균 2.74) 관련 문항이며, 그 다음으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주민에 대한 신뢰’(평균 2.64)와 ‘외국인주민들의 언어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평균 2.6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종교, 신뢰, 언어 등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많이 해소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표 II-6> 다양성 차원 척도III: 고정관념 및 차별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한다면 좋지 않다고 비판하겠다	165 (16.2)	397 (38.9)	207 (20.3)	164 (16.1)	72 (7.0)	15 (1.5)	2.63
이웃에 사는 외국인주민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호의적으로 대하기는 힘들다	233 (22.8)	422 (41.4)	179 (17.6)	141 (13.8)	38 (3.7)	7 (0.7)	2.36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인주민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악이나 무용,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239 (23.4)	430 (42.2)	182 (17.8)	121 (11.9)	37 (3.6)	11 (1.1)	2.33
나는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사는 한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종교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눈총을 주겠다	169 (16.6)	352 (34.5)	210 (20.6)	177 (17.4)	85 (8.3)	27 (2.6)	2.74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184 (18.0)	400 (39.2)	200 (19.6)	165 (16.2)	55 (5.4)	16 (1.6)	2.56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어서일 것이다	228 (22.4)	413 (40.5)	194 (19.0)	128 (12.5)	45 (4.4)	12 (1.2)	2.40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181 (17.7)	379 (37.2)	184 (18.0)	194 (19.0)	68 (6.7)	14 (1.4)	2.64

□ 관계성 차원

○ 일방적 동화 기대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동화 기대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이주민의 한국인 이해 노력, 이주민 자녀의 한국어 습득, 시댁 풍습과 예절 수용 등에 대해서는 인천 시민의 약 50% 내외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동화되어야 한다는 기대와 그렇지 않은 태도가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이주민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문항에만 70% 이상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모국 문화를 버려야 하는 정도까지의 동화 기대는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7> 관계성 차원 척도 I: 일방적 동화기대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인이 외국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한다	77 (7.5)	296 (29.0)	226 (22.2)	256 (25.1)	148 (14.5)	17 (1.7)	3.15
외국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66 (6.5)	256 (25.1)	206 (20.2)	273 (26.8)	189 (18.5)	30 (2.9)	3.35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51 (14.8)	340 (33.3)	237 (23.3)	187 (18.3)	86 (8.4)	19 (1.9)	2.78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이주민 여성은 시댁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95 (9.3)	211 (20.7)	189 (18.5)	294 (28.8)	186 (18.3)	45 (4.4)	3.39

○ 거부 및 회피 정서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개발도상국이나 그 외 지역의 이주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는 낮은 것으로 보임.

- 모든 문항이 6점 척도 중 평균 3점 이하로 외국이주민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의 이용’ 항목이 평균 2.57점으로 다른 문항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표 II-8> 관계성 차원 척도II: 거부·회피 정서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237 (23.2)	421 (41.3)	165 (16.2)	147 (14.4)	41 (4.0)	9 (0.9)	2.37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이주민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229 (22.4)	409 (40.1)	175 (17.2)	151 (14.8)	42 (4.1)	14 (1.4)	2.42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224 (22.0)	359 (35.2)	170 (16.7)	188 (18.4)	61 (6.0)	18 (1.7)	2.57

- 상호교류 행동의지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약 50% 내외의 시민들이 교류 행동 의지를 보여 이주민과의 교류 의지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님.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의 식당에서 밥을 먹겠다’는 문항은 6점 척도에서 평균 3.79점으로 가장 상호 교류 의지가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고, ‘내가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국적·문화권에 상관없이 데이트 하겠다’는 문항이 평균 3.49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데이트 관련에서는 외국인과의 상호교류 의지가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9> 관계성 차원 척도III: 상호교류 행동의지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기회가 있다면 외국이주민과 같은 친목모임이나 클럽에 가입하겠다	52 (5.1)	187 (18.3)	223 (21.9)	294 (28.8)	210 (20.6)	54 (5.3)	3.57
학교나 직장에서 조선족(중국동포)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43 (4.2)	125 (12.3)	259 (25.4)	349 (34.2)	196 (19.2)	48 (4.7)	3.66
나는 외국인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40 (3.9)	125 (12.3)	241 (23.6)	288 (28.2)	260 (25.5)	66 (6.5)	3.79
내가 만약에 미혼이라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데이트 하겠다	77 (7.6)	187 (18.3)	266 (26.1)	223 (21.9)	185 (18.1)	82 (8.0)	3.49

□ 보편성 차원

- 이중적 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업무 능력, 문화우열, 친구사귄 등에 대해 차별의식은 크지 않으나 선진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향성은 62% 이상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들의 이중적 평가의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문은 평균점을 비교해 볼 때 언어와 문화 > 업무능력 > 친구사귄 > 문화우열 순으로 드러남.

<표 II-10> 보편성 차원 척도 I: 이중적 평가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선진국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57 (5.6)	173 (17.0)	153 (15.0)	309 (30.3)	273 (26.7)	55 (5.4)	3.72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업무능력이 더 좋을 것이다	81 (7.9)	282 (27.6)	212 (20.8)	286 (28.1)	137 (13.4)	22 (2.2)	3.18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가능한 한 선진국 출신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바람직하다	97 (9.5)	298 (29.2)	225 (22.1)	229 (22.5)	135 (13.2)	36 (3.5)	3.11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159 (15.6)	324 (31.8)	229 (22.4)	208 (20.4)	78 (7.6)	22 (2.2)	2.79

- 세계시민 행동의지와 관련된 문항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세계시민의식과 행동의지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특히,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흥미로움',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를 돕기 위해 한 끼를 굶을 수 있음', '부당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고 싶음' 등의 문항에서는 약 80% 이상의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세계 시민으로서의 행동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거나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성금을 낸 경험' 등에서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위 문항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의지보다 세계시민의식과 행동실천이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표 II-11> 보편성 차원 척도 II: 세계시민 행동의지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6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16 (1.6)	75 (7.4)	112 (11.0)	346 (33.9)	339 (33.2)	132 (12.9)	4.29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26 (2.5)	128 (12.6)	178 (17.5)	339 (33.2)	261 (25.6)	88 (8.6)	3.93
기아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22 (2.2)	55 (5.4)	110 (10.8)	280 (27.4)	379 (37.1)	174 (17.1)	4.43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근로자를 보면 돕고 싶다	8 (0.8)	30 (2.9)	68 (6.7)	334 (32.8)	436 (42.7)	144 (14.1)	4.56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낸 적이 있다	72 (7.0)	157 (15.4)	102 (10.0)	221 (21.7)	353 (34.6)	115 (11.3)	3.95

3) 다문화 관련 경험

□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 노출 경험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 외국인’ >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 ‘한국인과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순으로 접촉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이주민’과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이주민’은 대중매체를 통한 접촉 경험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대중매체를 통해 많이 접촉되는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모습은 주로 한국 사회에 동화된 모습이며, 부당한 피해자의 모습은 중간 정도 수준으로 접촉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은 별로 접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표 II-12>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관련 내용 접촉 경험

구분	빈도분석(n=1,020)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있다
봉사활동을 하는 외국이주민	147 (14.4)	330 (32.3)	432 (42.4)	96 (9.4)	15 (1.5)
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	101 (9.9)	194 (19.0)	451 (44.2)	236 (23.2)	38 (3.7)
한국인과 서로 화합하여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33 (3.2)	138 (13.5)	429 (42.1)	358 (35.1)	62 (6.1)
강제 추방되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123 (12.1)	243 (23.8)	394 (38.6)	206 (20.2)	54 (5.3)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이주민	125 (12.3)	300 (29.4)	384 (37.7)	181 (17.7)	30 (2.9)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68 (6.7)	183 (17.9)	388 (38.0)	288 (28.3)	93 (9.1)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23 (2.2)	57 (5.6)	283 (27.7)	430 (42.2)	227 (22.3)
다문화 이해 공익광고 및 홍보영상	51 (5.0)	181 (17.7)	431 (42.3)	265 (26.0)	92 (9.0)
외국인 범죄자	79 (7.7)	198 (19.4)	431 (42.3)	252 (24.7)	60 (5.9)
연예 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외국인	26 (2.5)	67 (6.6)	253 (24.8)	427 (41.9)	247 (24.2)
한국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운동선수	100 (9.8)	278 (27.2)	432 (42.4)	153 (15.0)	5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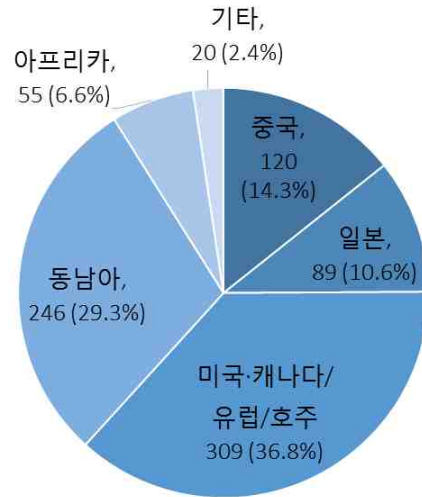
- 최근 1개월 동안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인 또는 외국이주민을 본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80%로 많음.



<그림 II-1> 대중매체를 통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여부

- ‘있다’라고 응답한 816명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인 또는 외국이주민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다중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미국·캐나다·유럽·호주·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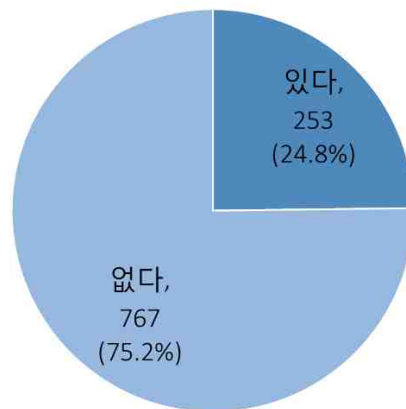
랜드'가 3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동남아'(29.3%), '중국'(14.3%), '일본'(10.6%) 순임. '아프리카'는 적은 편이며, 기타 국가로 러시아, 멕시코 등이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함.



<그림 II-2> 가장 기억에 남는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출신국

□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 경험

-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4.8%에 그쳐 다문화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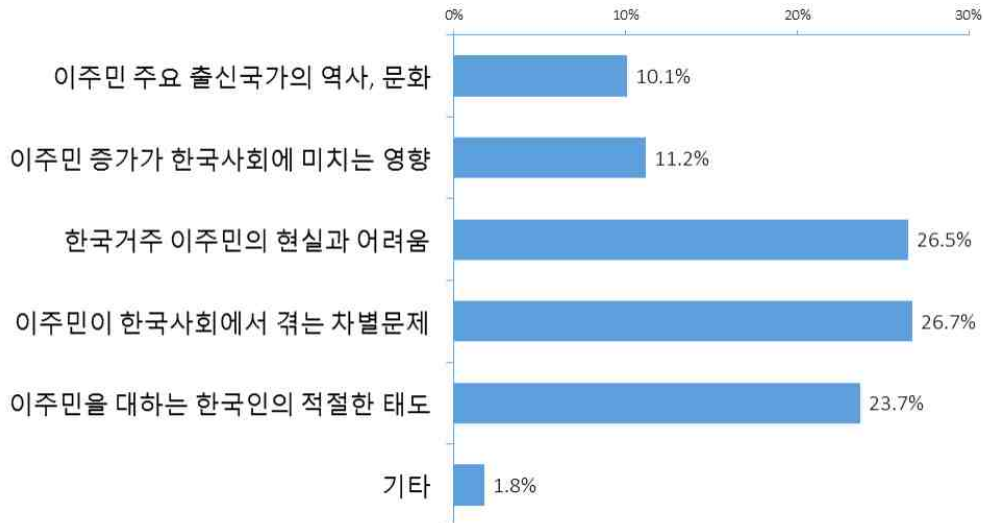


<그림 II-3> 다문화교육 경험 여부

- 다문화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253명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다문화 교육을 받았는지 다중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차별 문제'(26.7%)와 '한국 거주 이주민의 현실과 어려움'(26.5%)이 가장 많고,

다음은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23.7%)로 나타나, 주로 외국이주민의 거주 실태와 이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교육받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이주민 주요 출신국가의 역사와 문화’(10.1%)나 ‘이주민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11.2%)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 받은 경험이 적다고 응답함.



<그림 II-4> 다문화 관련 교육의 내용(다중응답)

- 지금까지 한국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함께 하는 축제, 체육대회 등의 다문화 행사’에 참여했다는 응답이 17.1%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다문화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율은 10% 내외로 저조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외국인 및 이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5> 외국인 및 이주민과의 활동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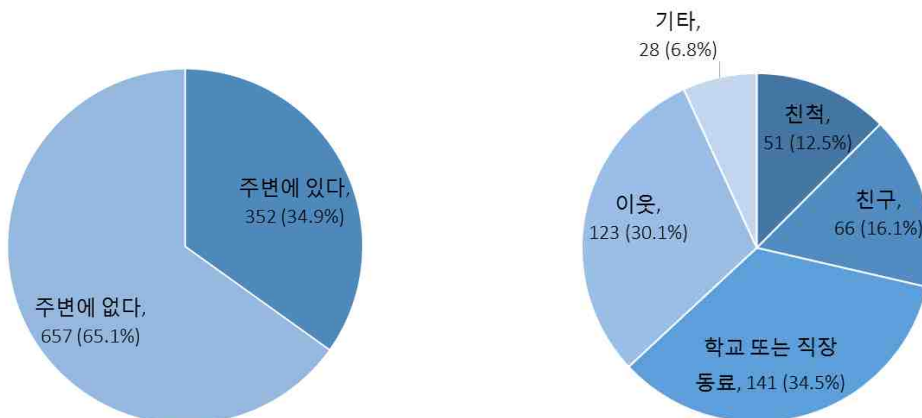
- 다문화 관련 교육, 활동 및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본 결과, 약 50% 이상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5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다문화교육’(평균 3.84)이고, 다음이 ‘자원봉사 활동’(평균 3.66) > 축제, 체육대회 등 ‘다문화 행사’(평균 3.58) > ‘동호회 활동’(평균 3.51) 순으로 나타남.

<표 II-13>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활동의 필요성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5점 척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다문화교육	14 (1.4)	39 (3.8)	271 (26.6)	464 (45.5)	232 (22.7)	3.84
다문화 행사	6 (0.6)	75 (7.4)	380 (37.3)	444 (43.5)	115 (11.3)	3.58
자원봉사 활동	9 (0.9)	47 (4.6)	358 (35.1)	471 (46.2)	135 (13.2)	3.66
동호회 활동	8 (0.8)	94 (9.2)	403 (39.5)	397 (38.9)	118 (11.6)	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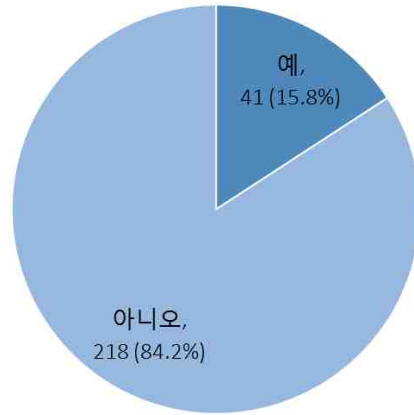
□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경험

-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9%로,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이들과의 갈등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352명에게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어떤 관계인지 다중응답으로 물어본 결과, ‘학교 또는 직장 동료’(34.5%)가 가장 많고, 다음이 ‘이웃’(30.1%), ‘친구’(16.1%), ‘친척’(12.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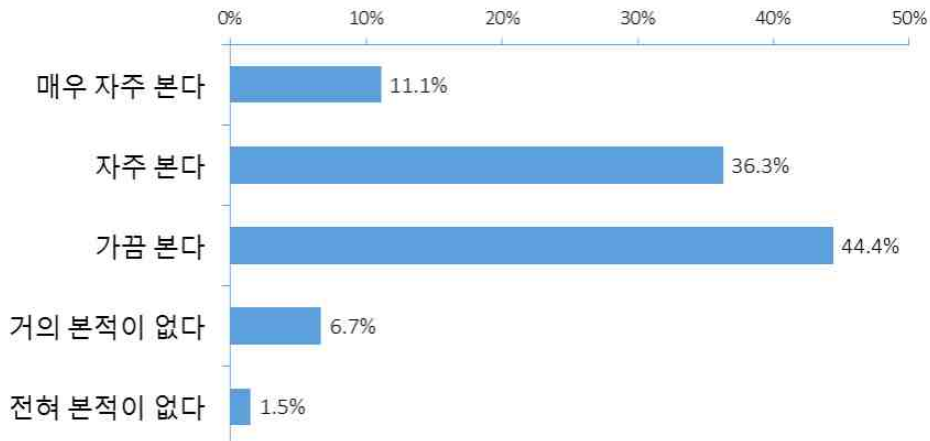
<그림 II-6> 주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유무 <그림 II-7>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관계

- 학교 또는 직장 동료, 이웃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있다고 응답한 259명을 대상으로 그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84.2%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15.8%는 갈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8> 주변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갈등 경험 유무

- 모든 응답자들에게 대중교통, 쇼핑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알아본 결과, 꽤 빈번하게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9> 길거리에서의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 접촉 빈도

4) 다문화 관련 인식

□ 국민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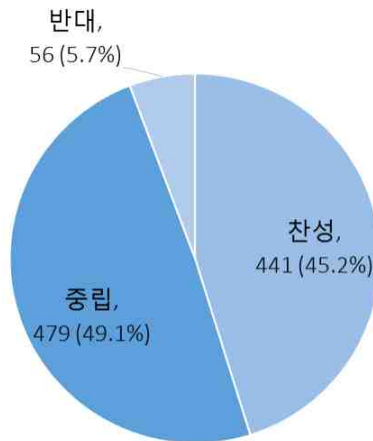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인천 시민들은 ‘한국인임을 느낌’(평균 3.24), ‘한국 정치제도와 법 존중’(평균 3.21), ‘한국 국적’(평균 3.19), ‘한국어능력’(평균 3.17) 등의 요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한국인 조상’(평균 2.63), ‘한국 거주’(평균 2.65), ‘한국 출생, 한국인 부모’(평균 2.7)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요건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함.

<표 II-14> 한국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4점 척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00 (9.8)	292 (28.6)	439 (43.1)	189 (18.5)	2.70
한국인 조상을 가지는 것	127 (12.4)	299 (29.3)	420 (41.2)	174 (17.1)	2.63
아버지가 한국인인 것	105 (10.3)	291 (28.5)	425 (41.7)	199 (19.5)	2.70
어머니가 한국인인 것	102 (10.0)	293 (28.7)	439 (43.0)	186 (18.3)	2.70
생애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97 (9.5)	324 (31.8)	437 (42.8)	162 (15.9)	2.65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것	70 (6.8)	260 (25.5)	516 (50.6)	174 (17.1)	2.78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31 (3.0)	103 (10.1)	549 (53.8)	337 (33.1)	3.17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27 (2.6)	100 (9.8)	528 (51.8)	365 (35.8)	3.21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25 (2.5)	106 (10.4)	485 (47.5)	404 (39.6)	3.24
한국 국적을 갖는 것	23 (2.3)	148 (14.5)	464 (45.5)	385 (37.7)	3.19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36 (3.5)	222 (21.8)	514 (50.4)	248 (24.3)	2.95

□ 자국민 우선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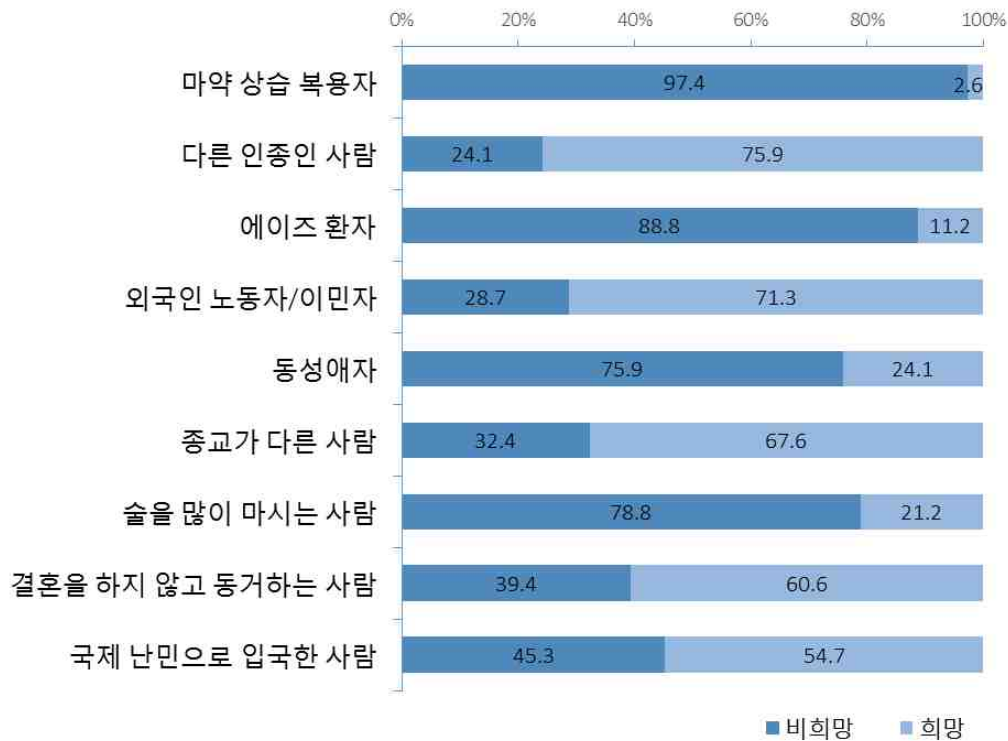
-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중립이 49.1%로 가장 많고 찬성이 45.2%, 반대가 5.7%로 나타남.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 않음.



<그림 II-10> 자국민 우선 고용에 대한 의견

□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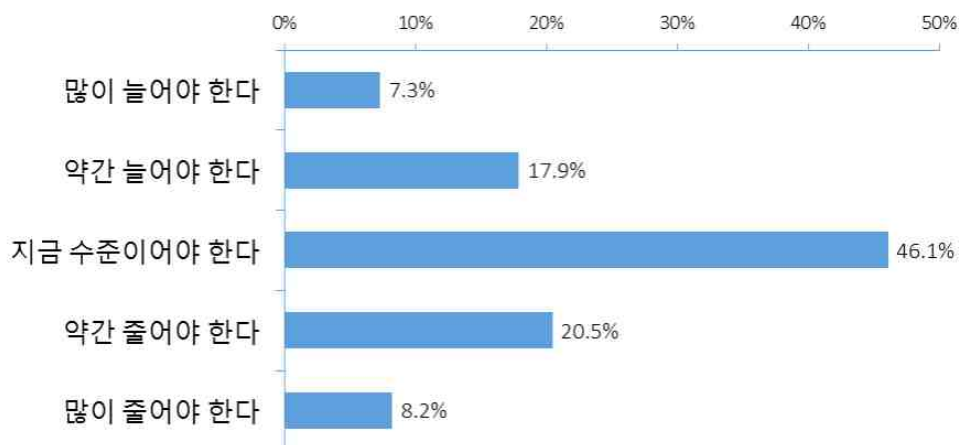
- 여러 유형의 사람들 중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알아본 결과, ‘마약 상습 복용자’, ‘에이즈 환자’, ‘과음하는 사람’, ‘동성애자’ 등 이들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시민들이 이웃으로 삼길 원하지 않음.
 -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시민의 45.3%가 ‘국제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28.7%의 시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및 이민자’를, 24.1%는 ‘다른 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함.
 - 범죄인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닌 질병(에이즈환자), 성소수자(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시민 비율이 높고, 외국이주민보다 난민에 대해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편견이 강한 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II-11>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

□ 적절한 외국인주민 수

- 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지금 수준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46.1%, ‘늘어야 한다’는 응답은 25.2%, ‘줄어야 한다’는 응답은 28.7%로, 현재보다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임.



<그림 II-12> 한국 내 적절한 외국인주민 수

□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

-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난민수용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는 동의하는 시민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남.
 - ‘난민 수용 기준 완화를 통한 난민 수용’에는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비율 (54.8%)이 더 높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는 동의하는 시민 비율 (58.1%)이 더 높게 나타남.
 - ‘기아, 재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외국인을 돕는 데 한국이 더 기여해야 한다’에는 동의하는 시민 비율이 77%이며,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에는 시민의 84.4%가 동의함.
 -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 해외 원조 등에는 동의하는 시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난민 문제에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난민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편임.

<표 II-15>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정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국제 난민을 수용해 주어야 한다	97 (9.5)	462 (45.3)	397 (38.9)	64 (6.3)	2.42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뿐만 아니라 난민 자격을 신청 중인 사람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94 (9.2)	334 (32.7)	529 (51.9)	63 (6.2)	2.55
기아, 재해, 재난으로 고통 받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한국사회가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31 (3.0)	204 (20.0)	637 (62.5)	148 (14.5)	2.88
세계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지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19 (1.9)	140 (13.7)	603 (59.1)	258 (25.3)	3.08

□ 세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족(평균 3.44)과 민족 구성원(평균 3.25), 지역사회 구성원(평균 3.21)으로서의 인식은 강한 반면에 개인(평균 2.81)이나 아시아(평균 2.72) 및 세계 시민(평균 2.68)으로서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을 가족(93.7%), 한국 민족(92.5%), 지역사회(90.9%)의 구성원으로 생

각하는 비율은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을 독자적 개인(65.5%),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성원(64%), 세계 시민(60.8%)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60%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개인주의 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공동체 의식은 강한 편이지만, 공동체의 범위가 좁을수록 자기 인식이 강하고, 넓을수록 약함.

<표 II-16> 세계인으로서의 자아정체감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4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신을 세계의 시민으로 생각한다	42 (4.1)	358 (35.1)	505 (49.5)	115 (11.3)	2.68
자신을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9 (3.8)	328 (32.2)	529 (51.9)	124 (12.1)	2.72
자신을 한국 민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3 (2.3)	53 (5.2)	591 (57.9)	353 (34.6)	3.25
자신을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6 (1.6)	77 (7.5)	604 (59.2)	323 (31.7)	3.21
자신을 가족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18 (1.7)	47 (4.6)	428 (42.0)	527 (51.7)	3.44
자신을 독자적인 개인으로 생각한다	91 (8.9)	261 (25.6)	422 (41.4)	246 (24.1)	2.81

□ 종족배제주의

- 다문화 및 단일민족 지향성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 지향성은 긍정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민족 지향성은 과거보다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문화지향성을 알아보는 세 문항에서는 모두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단일민족 지향성을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높게 나타난 반면 국가경쟁력이나 국가결속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단일민족 국가에 대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음.
 - 기존의 단일민족사상에 몰입되어 있던 상황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으로 전환되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하여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와 교육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표 II-17> 다문화지향성 및 단일민족지향성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인종, 종교, 문화적 다양성이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33 (3.3)	141 (13.8)	432 (42.4)	336 (32.9)	78 (7.6)	3.28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27 (2.6)	141 (13.8)	396 (38.8)	378 (37.2)	78 (7.6)	3.33
외국이주민들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문화는 더욱 풍부해진다	29 (2.8)	232 (22.8)	396 (38.8)	295 (28.9)	68 (6.7)	3.14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56 (5.5)	357 (35.0)	364 (35.7)	197 (19.3)	46 (4.5)	2.82
한국이 오랫동안 단일민족 혈통을 유지해 온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40 (3.9)	156 (15.3)	376 (36.9)	290 (28.4)	158 (15.5)	3.36
한국이 단일민족 국가라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52 (5.1)	262 (25.7)	380 (37.3)	230 (22.5)	96 (9.4)	3.05

○ 외국이주민에 대한 종족배제주의 관련 경향을 알아본 결과, 다른 인종이나 종교, 문화를 가진 이주민의 수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합법적 이주민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주민들이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14.7%에 불과하여, 이주민이 체류기간 중에는 모국의 전통이나 습관을 유지해도 되지만 이주민을 무한정 수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함.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3.1%이고,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3.6%인 것으로 보아, 인천 시민들은 근로자의 합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은 32.3%, 이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5.7%로 나타나, 영주권이나 국적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것으로 보임.

<표 II-18> 종족배제주의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42 (4.1)	185 (18.1)	337 (33.1)	401 (39.3)	55 (5.4)	3.24
외국인주민들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과는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139 (13.6)	443 (43.4)	289 (28.3)	134 (13.2)	15 (1.5)	2.45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은 즉각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57 (5.6)	199 (19.5)	324 (31.8)	299 (29.3)	141 (13.8)	3.26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같은 노동법적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15 (1.5)	79 (7.7)	277 (27.2)	445 (43.6)	204 (20.0)	3.73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이나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60 (5.9)	202 (19.8)	428 (42.0)	242 (23.7)	88 (8.6)	3.09

- 외국인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정도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근로나 경제기여에 대해서는 위협 인식이 낮지만, 범죄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위협 인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40.2%로 긍정적 응답비율(25.7%)보다 더 높고, ‘외국인근로자의 우리 경제 기여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38.5%로 긍정적 응답비율(21.2%)보다 높게 나타나 근로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범죄율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32.1%)과 긍정적 응답(31.3%)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이주민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 비율(35%)이 부정적 응답비율(24.1%)보다 더 높게 나타나, 범죄와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위협적 인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임.

<표 II-19> 외국인 근로자 등에 관한 의견

구분	빈도분석(n=1,020)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외국인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70 (6.9)	340 (33.3)	348 (34.1)	219 (21.5)	43 (4.2)	2.83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65 (6.4)	327 (32.1)	411 (40.3)	183 (17.9)	34 (3.3)	2.80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63 (6.2)	264 (25.9)	373 (36.6)	252 (24.7)	68 (6.6)	3.00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 그들을 지원해야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42 (4.1)	204 (20.0)	417 (40.9)	301 (29.5)	56 (5.5)	3.12

II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1) 조사 결과 요약

- 인천 시민 20대 이상의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문화수용성

- 다양성 차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하여 문화개방성의 정도가 그리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이고, 국민정체성 측면에서의 수용성도 중간 정도 수준이지만,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의식은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수용성은 중간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피부색, 문화, 인종, 종교 등에서 문화개방성의 정도는 중간 정도 수준이며, 특히 생소한 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성의 정도가 낮음.
 -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수용하는 데 한국출생, 한국 전통음식보다는 피부색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주민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수용적이지 않은 시민 비율이 조금 더 높음.
 -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 의식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나, 종교, 신뢰, 언어 측면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잔존하고 있음.
- 관계성 차원을 살펴보면, 이주민에 대한 동화 기대는 낮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일부분 남아 있으며, 이주민에 대한 거부나 회피 정서는 꽤 낮고,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긍정적인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음. 종합적으로 자

신과 간접적인 관계 차원에서는 관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일방적 동화 기대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음. 모국 문화를 버려야 한다는 정도까지의 동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지만, 한국인보다 이주민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과반 정도로 나타남.
- 거부 및 회피 정서 관련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정서는 꽤 낮은 것으로 보임.
- 이주민과의 상호교류 행동의지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이주민 밀집지역의 식당 이용 의지는 상대적으로 높고, 데이트 관련 의지는 낮게 나타남.
- 보편성 차원을 살펴보면,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선진국 지향성은 잔존하고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이나 행동실천경험보다는 행동의지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업무능력, 문화, 친구사귀 등에서 차별의식은 많지 않지만 선진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60% 이상으로 나타나, 이중적 평가 의식이 조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세계시민의식과 행동실천은 상대적으로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남.

□ 다문화 관련 경험

- 인천 시민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주로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과 동남아 출신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자주 접하며, 연예오락 프로그램 출연 외국인, 한국어를 잘 하는 외국인 등을 대중매체에서 자주 접하게 됨. 반면에, 봉사활동 하는 외국이주민, 한국인에게 자신의 언어나 문화를 가르치는 외국이주민 등은 거의 접하지 못함.
- 약 25%의 인천 시민들만이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고 주된 내용은 이주민의 한국 거주 차별과 어려움, 이주민을 대하는 한국인의 적절한 태도 등이며,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 내외에 불과함. 이와 달리, 약 50% 이상의 시민들이 다문화 관련 교육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약 35%의 시민들은 주변에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이 학교 또는 직장 동료로,

혹은 이웃, 친구나 친척 등으로 있으며, 극소수는 이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도 있음. 인천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길거리 등에서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가끔 또는 자주 보는 상황임.

□ 다문화 관련 인식

- 국민정체성과 관련하여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인천 시민들은 혈연적 관계나 거주지보다 ‘한국인이라는 자의식’, ‘한국 정치제도와 법 존중’, ‘한국 국적’, ‘한국어능력’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일자리가 귀할 때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아, 국민우선주의 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인천 시민들의 70% 이상은 범죄인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과 더불어 성 관련 질병보유자나 성소수자도 꼽음. 난민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시민의 비율이 외국이주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적정 외국인 수와 관련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 인천 시민들은 대체로 부정적임.
- 국내외 현안인 지구문제 해결이나 해외원조 등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만, 난민 문제의 경우 인도적 지원에는 동의하지만 수용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더 많음.
- 가족, 민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매우 강하고, 독자적 개인, 동북아시아 공동체,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상대적으로 다소 약하게 나타남.
- 종족배제주의와 관련하여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높지만, 단일민족 지향성은 강하지 않으며, 다문화지향성은 높은 편임. 합법적 이주민과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성이 약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타성이 강하며, 이주민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일자리와 경제적 기여 측면에서는 외국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약하지만, 범죄와 재정부담 측면에서는 위협 인식이 다소 남아 있음.

2) 시사점

- 다문화수용성을 좀 더 제고해야 함. 생소한 문화나 종교에 대한 개방성이 낮고 편견이 잔존함.
- 직접적인 관계성 향상과 상호 교류 활동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의 간접적인 관계성은 높은 편이나 직접적인 관계는 선호되지 않고, 개인적, 소규모 활동도 선호되지 않음.
-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인식 개선 홍보가 필요함. 언론에 등장하는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의 이미지는 동화된 외국인이 가장 많고, 다음이 부당한 피해자의 이미지임. 자발적 적극적 활동을 하는 외국인의 이미지는 부족함.
- 다문화교육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 시민의 요구도 크며,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상황이므로 다문화교육의 확대 및 강화는 필수적임.
- 인권 및 반편견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다문화지향성이 증가하고 단일민족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으나, 시민들은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며, 이주민에 대하여 합법성을 중시하면서도 결국 성 질환자나 성소수자, 난민 등에 대해서는 편견이 잔존하고 있음.
- 세계시민의식의 강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중적 평가가 잔존하고 있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실천이 다소 약함. 지역공동체 의식보다 세계시민의식은 약한 편이며, 외국근로자에 대하여 일자리, 범죄, 재정부담 등에서 위협인식이 잔존하고 있음.

2. 정책 제언

1) 다문화교육 확대 및 강화

□ 다문화이해교육

- 인천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개방적인 시민들이 과반 이상이긴 하지만, 다문화수용성을 조금 더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것은 생소한 문화, 종교에 대해서는 편견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임.

- 생소한 문화나 종교에 대하여 본질적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조금 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은 인천 관내의 시민대학, 평생교육기관, 언론매체,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인권 교육

- 다문화교육의 기본은 인권 존중임. 인권 존중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등사상을 토대로 성, 인종, 연령, 신분, 문화,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기본적 보편가치임.
- 다문화교육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육임. 따라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상생은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므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2) 세계시민교육 확대 및 강화

-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행동의지 등을 강화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이 확대, 강화되어야 함.
- 세계시민교육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으로서,²⁾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연대성을 토대로 함.
 -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피부색에 따른 차별, 외국인과 목욕탕을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잔존하고 있고, 국제 난민에 대해서는 이주민보다 더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협소한 범위의 공동체 의식은 강하지만 지구적 범위의 공동체 의식은 희박하므로, 세계에 거주하는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강화되고 편견과 차별 의식이 해소되어야 함.
 -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노력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노력이 필요하고, 이주민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에 대해서

2)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계기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의 새로운 국제 교육의제로 부상하였음.(자료: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8B%9C%EB%AF%BC%EA%B5%90%EC%9C%A1>)

는 수용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지구적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와 태도가 요구됨.

- 인천 시민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의지는 강하게 나타난 만큼, 세계가 하나의 지구공동체라는 세계시민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실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준다면, 세계시민교육의 효과는 더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계시민교육도, 다문화교육과 마찬가지로, 인천 관내의 시민대학, 평생교육기관, 언론매체,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3)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문화인식 개선

-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공익광고 등을 실행해야 함.
-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다름이 어울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각종 대중매체를 통하여 캠페인, 홍보 등을 실행함.

4) 외국이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지원

- 외국이주민과 간접적·직접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규모·소규모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이나 편견을 해소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행사 및 축제 참여 권장

- 대규모로 진행되는 다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에는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많으므로, 문화적 다양성을 체험하고 존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이 가능한 행사와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인천시도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향후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들이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이들과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체험형과 협력형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

□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및 취미활동 동호회 구성 및 지원

- 소규모 활동을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과 일반인이 함께 활동하는 자원봉사단체와 취미활동 동호회를 구성하고 지원함.
- 소규모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게 되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편견 해소, 협력과 배려 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계시민의식도 자연스럽게 함양될 수 있을 것임.

□ 직장 내 동호회 조성 지원

- 외국인 및 외국이주민을 직장 동료 및 친구로 두고 있는 시민들도 꽤 있는데, 근거리에서 함께 자주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다문화인식 개선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직장 내 동호회 구성과 활동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교류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어울림, 다름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인권의식 등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 다문화수용성이 제고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제어 ▶ 다문화수용성, 외국이주민, 다문화교육, 세계시민의식

참고문헌

- 문승호·김영천·정정훈 공역(2009). 다문화교육의 탐구: 다섯 가지 방법들 6판. 아카데미프레스. Christine E. Sleeter, Carl A. Grant(2009).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6/E, NY: John Wiley & Sons, Inc.
- 안상수 외(2015).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안상수 외(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인천광역시(2016). 인천비전 2050.
- 전경옥(2010). 다문화사회의 학교 내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미국 캘리포니아 주 공립학교 다문화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Social Paradigm Studies*, 25(2), 41~76.
- 행정안전부(2017).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행정안전부(2011).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 현황.
- 위키백과(2017. 12. 12. 검색)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8B%9C%EB%AF%BC%EA%B5%90%EC%9C%A1>